

숙종대 역사고사도 제작과 〈謝玄破秦百萬兵圖〉의 정치적 성격

이 성 훈*

- I. 머리말
- II. 淝水 전투와 〈사현파진백만병도〉
- III. 〈사현파진백만병도〉의 회화적 특징
- IV. 숙종과 역사고사도
- V. 〈사현파진백만병도〉의 제작 목적
- VI. 결론

I. 머리말

〈謝玄破秦百萬兵圖〉(도 1)는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현재 安徽省 合肥市 肥西縣에 위치한 淝水 부근에서 東晉 장수 사현(謝玄, 343-388)이 前秦 왕 부견(苻堅, 357-385)이 이끄는 백만 부대를 격파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림의 작자는 알 수 없으며, 그림 상단 원편에는 1715년 3월에 지은 숙종(肅宗, 1674-1720)의 御製詩가 적혀 있다. 이 글은 『列聖御製』에도 실려 있다.¹

*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¹ 『列聖御製』²(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2002), pp. 460-461.



도1 작가미상, <사헌파진백만병도>, 1715년경, 8폭병풍, 비단에 채색, 170.0 × 418.6cm, 국립중앙박물관

晉時安石有高名 진나라 때 사안(謝安, 320-385)은 높은 명성이 있어
 坐却符堅百萬兵 앉아서 부견의 백만 부대를 물리쳤다.
 靑岡一潰旌旗倒 청강에서 한 번에 꺾멸되자 깃발이 꺾였다.
 鶴唳風聲走者驚 비람 소리, 학의 울음소리에 달아나는 자들이 놀라는구나.

어제 글씨는 단정한 해서 필치이며, 어제 글씨 아래에는 ‘宸章’이라는 御印이 찍혀 있다. 이 글씨와 어인은 1715년에 숙종이 작성한 어제가 쓰여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漁樵門塔圖>와 傳 윤두서(尹斗緒, 1688-1715) 작 <陳博鶴圖>에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² 이 세 작품의 어제 글씨는 그 획의 특징이 서로 동일하며, 세 작품에 찍힌 ‘신장’ 印은 篆字의 모양이나 그 새김 방법이 거의 같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이 그림은 1715년 늦봄에서 머지않은 시점에 숙종의 열람을 거친 그림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³

인물, 말, 산수 표현에 보이는 꼼꼼하고 숙달된 필치, 채색에 사용된 청록 안료와 金泥는 이 그림이 숙종대 도화서 화원에 의해 제작된 궁중회화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에도

² 어제는 宸章이라는 印으로 마무리되었다. ‘宸章’은 임금이 친필로 쓴 글이나 편지를 나타내는 말로 숙종의 어제가 찍혀 있는 그림에는 항상 이 도장이 찍혀 있다. 어제의 오른쪽에는 怡齋圖書란 印이 찍혀 있다. 怡齋는 恭愍王(1351-1374)의 호이다. 도서의 새김이 줄렬하고 인장이 찍힌 위치가 또한 에대하며 이 그림과 전혀 상관 없는 공민왕의 호가 찍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도서는 후대에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³ 이 그림은 원래 南宮鍊(1916-2006) 씨가 소장하고 있었다. 2006년 7월 25일 그의 有志를 받은 유족들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으며, 2008년 8월 26일에서 12월 14일까지 개최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테마전 “왕의 글이 있는 그림”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

불구하고 이 그림에 대한 개별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⁴

〈사헌파진백만병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이 그림이 중국의 歷史故事를 소재로 한 사실이다. 숙종이 열람한 그림 중 歷史故事圖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사헌파진백만병도〉는 숙종이 감상한 역사고사도의 범주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이 그림이 도해한 고사 내용을 여러 문헌에 의거하여 자세히 밝힐 것이다. 그 다음으로 숙종이 다수의 역사고사도를 감상하고 그 제작을 지시한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사헌파진백만병도〉가 숙종이 자신의 정치 이념 및 철학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그 제작을 주문한 그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그림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하여 이 그림이 가지는 회화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II. 淝水 전투와 〈사헌파진백만병도〉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淝水戰을 일으킨 부견은 氐族 출신으로 西晉의 南京 천도 이후 다른 胡族들이 세운 국가들을 차례로 병합하여 북중국을 통일하였던 걸출한 군주였다. 그의 통치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五胡十六國 시대 최고의 聖時로 평가받는다.⁵ 비수 전투는 唐 태종대(太宗代, 626-649)에 편찬된 『晉書』의 苻堅傳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自治通鑑』 등 宋代에 편찬된 편년체 史書에도 큰 가감 없이 실렸다.⁶ 『진서』에 실려 있는 전쟁 과정은 다음과 같다.⁷

⁴ 장진아의 글이 유일한 연구성과이다(장진아, 『왕의 글이 있는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2008, pp. 28-34).

⁵ 부견의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들을 참조할 수 있다. 박한계, 『中國中世 胡漢體制 研究』(一潮閣, 1988), pp. 200-232; 姜文皓 「前秦 苻堅의 政治와 帝權」, 『中國學報』 37(1997), pp. 135-195; David Andrew Craff, *Medieval Chinese Warfare*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2), pp. 6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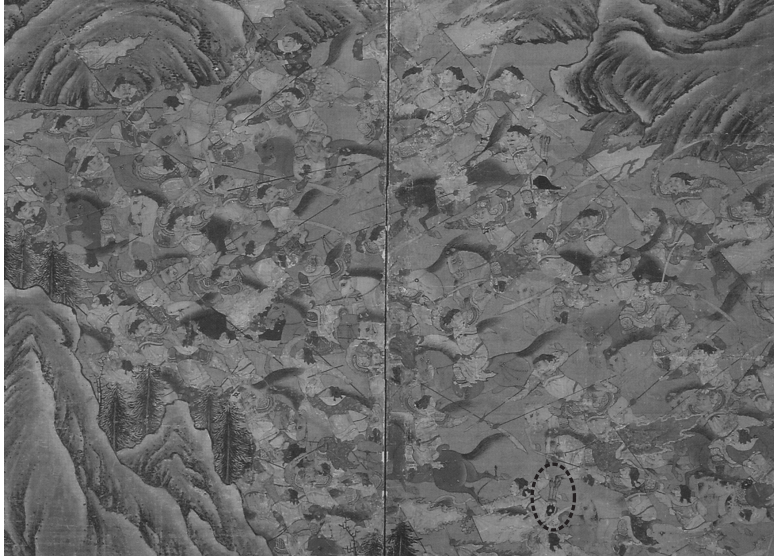
⁶ 송대에 편찬된 司馬光의 『自治通鑑』(11세기 초반), 朱熹의 『自治通鑑綱目』(11세기 후반), 姜贊의 『通鑑節要』(1237년 간행) 등에도 비수 전쟁의 자세한 내막이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 두 번역서를 중심으로 비수 전투의 전말을 실었다. *The Chronicle of Fu Chien: A Case of Exemplar History*, translated and annotated with prolegomena by Michael C. Rogers(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155-181; 사마광, 권중달 역, 『自治通鑑』 11(삼화, 2007), pp. 374-398.

⁷ 『진서』보다 몇 백년 후에 편찬된 『자치통감』은 그 세부 내용이 『진서』와 약간 다르다. 여러 사건들의 선후 관계가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도 하며, 『진서』에 없던 내용이 새로 첨가되거나 『진서』에 있던 것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비수전의 전말은 『자치통감』에 앞서 출간된 『진서』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부견은 부용(苻融, ?-383) 등이 크게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83년 8월 8일 87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진 정벌을 감행하였다. 같은 해 10월 먼저 부용이 수춘(壽春, 안휘성 수현)을, 부견과 모용수(慕容垂, 384-396)가 항성(項城, 河南省 沈丘縣)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양성(梁成, 4세기 말 활약) 등은 낙간(洛澗, 安徽省 淮南市 동쪽을 흐르는 淮可의 지류)에 주둔하였다. 이 중 부용과 양성은 비수를 사이에 두고 동진군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부용이 동진군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부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부견은 부용을 지원하기 위해 항성(項城) 하남성 침구현)에 대군을 남겨두고 경무장한 기병 8천 명을 이끌고 부용에게 급히 달려갔다. 그 즈음에 부견은 한족 출신인 주서(朱序, 4세기 말 활약)를 동진의 鎭營에 보내어 동진군의 항복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동진군의 陣地에 이른 주서는 그를 使臣으로 보낸 부견의 뜻을 거스르고 동진 장수 사석(謝石, 327-388) 등에게 부견의 백만 부대가 모두 이르기 전에 먼저 전진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요지의 계책을 동진군에 내놓았다. 동진의 군영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전진 장수 장자(張蚝, 4세기 말 활약)와 사석이 비수 남쪽에서 전투를 벌였다. 장자가 승리를 거두었으나 사현과 사염(謝琰, 4세기 말 활약)이 수만의 병사를 이끌고 진을 치자 장자가 곧 비수로 물러났다. 이렇게 되자 동진군은 비수를 건널 수 없었다. 이에 동진 군영에서는 전진의 군영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동진군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전진군이 조금만 물러나 주기를, 이후 속히 싸움을 벌일 것을 요청하였다. 부용은 비수를 건넌 뒤 방향을 돌려 동진의 군대를 맞으려는 십산으로 동진군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퇴각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전진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오인하고 분망하게 퇴각하였다. 부용이 이를 제어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말에서 넘어져 죽임을 당하였다.⁸ 전진군이 패배당하는 장면은 사마광이 『자치통감』에서 축약하여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사현 등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 전진의 군대를 추격하니 청강(靑岡, 수춘현의 서쪽)에 이르러 전진의 부대는 크게 패했다. (가)이때 병사들이 서로 밟고 깔아뭉개니 죽은 자가 들을 덮고 시내를 메울만 했다. (나)이에 달아나는 병사들은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하나같이 동진의 병사가 머지않아 당도할 것이라 생각했다. (다)낮과 밤을 쉬지 않고 풀밭을 가로지르며 야외에서 자야 했다. 더욱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는 자가 열에 칠, 팔이었다. (라) 처음 전진의 부대가 막 물러났을 때 주서는 전진군의 배후에 있으면서 “전진군이 패했다!”

⁸ *The Chronicle of Fu Chien*, pp. 152-170.



도2 작가미상,〈사현파진백만병도〉중 제3,4쪽

라고 외쳤다. 무리들이 마침내 크게 달아났다(밀줄은 필자)?

이로써 미루어보면 〈사현파진백만병도〉는 동진군의 요청에 따라 비수에서 물러난 전진군이 오히려 동진군에 추격을 당하며 청강에서 크게 궤멸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된다. 이를 입증하듯 〈사현파진백만병도〉의 각 표현 요소들은 위 사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먼저 그림 제 1쪽 상단에 묘사된 강은 비수를 표현한 듯하다. 강을 뒤로 하고 가파른 산을 막 내려와 오른편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병사들은 동진군에 추격당하는 전진의 군사들로 짐작된다. 화면 중앙에 서로 창과 칼을 겨누거나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가)부분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동진군에 쫓겨 황급히 달아나는 전진군의 慌忙한 모습을 圖示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2). 제 5-8쪽에는 손을 짝 편 채 혹은 소매 속에 손을 넣어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 놀라 달려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각자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도3). 이는 (다)의 내용처럼 부리니케 도망가야 했던 전진 병사들의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한 것으

⁹ 사마광, 권중달 역, 위의 책, p. 394; 司馬光 『資治通鑑』 卷 105, 晉紀 27 烈宗孝武皇帝上之下, “女等乘勝追擊 至於青岡 秦兵大敗 自相蹈藉 而死者蔽野塞川 其走者聞風聲鶴唳 皆以爲晉兵且至 晝夜不敢息 草行露宿 重以饑寒 死者十七八 初秦兵少却 朱序在陣後呼曰 秦兵敗矣 衆遂大奔”(『資治通鑑』, 上海古籍出版社, 영인본, 1987, p. 704).



도3 작가미상. 《사현파진백만병도》중 제7, 8폭

로 생각된다. 패주하는 전진군의 모습은 제 8폭 상단 익선관과 붉은 색 곤룡포를 착용한 채 백마를 타고 달아나는 인물의 표현에서 정점을 이룬다(도3). 말을 탄 이 인물은 바로 전진의 왕 부견으로 추정된다. 『진서』는 당시 부견의 모습에 대해 “부견은 날아오는 화살을 맞았다. 홀로 말을 타고 달아나 강 북쪽으로 돌아갔다. 배고픔이 심했다(堅爲流矢所中 單騎遁還於河北 飢甚)”라고 기술하였는데, 그림에는 이러한 부견의 모습(도 9)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다.¹⁰

패주하는 전진군의 모습 외에도 《사현파진백만병도》에는 위 사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림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먼저 그림 중간,

언덕과 바위 사이사이에는 수직으로 솟은 깃발이 보인다. 그리고 제 1, 2폭 하단에는 무리를 이루어 기를 높이 든 채 서 있는 인물들이 보인다(도1). 이는 (라)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는 두 마리의 학이, 화면 중간 부분에는 그 앙상한 가지가 군사들이 도주하는 반대 방향으로 크게 쏠린 나무가 여러 그루 그려져 있다(도3). 이는 (나)의 구절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메마르고 험한 산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그리고 이와 대비되어 더욱 짙은 푸름을 보이는 소나무의 표현은 이 일이 일어난 음력 11월 겨울의 상황과 시각적으로 잘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방향으로 내뿜은 바위산과 언덕 표현은 적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전진 병사들의 절박한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그림의 작가가 창안한 장치로 파악된다(도1). 《사현파진백만병도》는 이처럼 여러 사서에 기록된 전진군의 패배 장면 및 전진군의 패배와 관련된 일화 및 정황을 위 사서에 의거 매우 자

¹⁰ The Chronicle of Fu Chien, p. 170.

세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파악된다.

III. <사헌파진백만병도>의 회화적 특징

<사헌파진백만병도>의 가장 중요한 회화적 특징은 鐵線描와 화려한 채색으로 다양한 인물과 말을 묘사한 데 있다. 동시대에 그려진 그림 중 아직까지 이 그림의 직접적 연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물의 동작과 표정 그리고 말의 모습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한 그림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인물 및 말 표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騎馬 인물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진 『皇明英烈傳』, 『三國志通俗演義』 등 명대 판화들이다. 이 무렵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종류의 판화가 당시 화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人馬에 보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은 당시 중국에서 수입된 인물 판화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숙종의 열람이 확인되는 『황명영렬전』은 1711년 무렵에는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¹¹ 『삼국지통속연의』는 조선에서 가장 널리 유포된 『周日校本』을 비롯하여 여러 판본이 17세기 이후 유입되어 널리 읽혔다.¹² 이에 두 판화의 삽화와 <사헌파진백만병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헌파진백만병도> 속 인물은 『황명영렬전』 속 장수처럼 上衣를 두 벌 겹쳐 입지도, 배자처럼 보이는 옷을 착용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황명영렬전』 속 장수와 달리 어깨에 갑옷을 둘러썼다. 그러나 네모나게 생긴 얼굴, 눈썹, 코, 수염의 표현 방식, 그리고 투구의 형태, 스카프처럼 보이는 천을 어깨에 맨 모습은 『황명영렬전』 속 인물과 상당히 비슷하다(도4, 5). 이 외에도 <사헌파진백만병도> 속에 보이는 다양한 기마 인물의 동작

¹¹ 『皇明英烈傳』은 명나라 太祖가 여러 호걸들과 함께 명나라를 창건하는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이 소설의 작자에 대해서는 嘉靖 연간(1522-1566)에 활동한 武定侯 郭勛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雲合奇踪』, 『英烈傳』, 『明志傳』, 『洪武全傳』 등 다양한 제목으로 명명되는 이 책은 1591년에 나온 重刻本 崇禎 연간(1628-1644)에 간행된 본, 清代 英德堂本 등 다양한 본으로 전해진다(崔容澈 「奎章閣本 中國小說 善本解題(3)」, 『中國小說研究會報』 11, 중국소설연구회, 1992, pp. 63-65). 숙종은 1711년 이전에 이 책 삽화의 주요 장면이 그려진 병풍 그림을 감상하였다(『列聖御製』 5, p. 507).

¹² 본고에서는 일명 ‘萬卷樓本’으로 불리는 周日校本 『삼국지통속연의』(1591년 간행)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본은 현존하는 최초의 『삼국지연의』로 알려져 있는 ‘嘉靖壬午本’을 교정한 후 音注와 義釋을 붙이고 삽화를 넣어 신간한 책으로 『삼국지연의』와 관련된 모든 삽화본 가운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서성, 『三國志通俗演義 萬卷樓本 삽화 연구』, 『中國小說論叢』 22, 한국중국소설학회, 2005, pp. 1-5). 조선에 유입되어 17-18세기에 널리 유포된 본도 바로 이 주알교본이다(박계연, 『삼국지연의』에 대하여, 『우리의 삼국지 이야기』, 서울 역사박물관, 2008, p. 192).



도4 작가미상, <사현파진백만병도>중
제6폭 장수 모습



도5 서위(徐渭) 찬『황명영렬전』중 삽화, 16세기 중반
(『고본소설집성(古本小說集成)』193, 上海古籍出版社, 日本日光晃山齋藏明刻本影印, 1990)

표현은 『황명영렬전』에 수록된 삽화들과 유사하여 흥미롭다. 몸을 뒤로 약간 비튼 채 창을 위로 들어 올린 병사, 갈기와 꼬리를 드날리며 앞·뒷발을 힘껏 뻗은 채 질주하는 말의 모습은 『황명영렬전』 삽화 속 인물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도6, 7). 한편 『삼국지통속연의』(주알교본)의 <三戰呂布>의 삽화에 보이는 여포(呂布, ?-198) 및 세 장수가 접전을 벌이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 <사현파진백만병도>에도 보인다. 특히 등을 진 채 몸을 뒤로 약간 비틀어 뒤따라오는 병사들과 창을 겨루는 여포의 모습(도8)은 위 병풍 그림에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도2 하단). 이처럼 <사현파진백만병도>에 보이는 人馬의 표현 방식은 명대 판화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현파진백만병도>는 도화서 회원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화풍 및 양식에 있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그림들과 연관된다. <사현파진백만병도>에서 도망가는 병사의 모습(도3의 중앙 하단)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전 윤두서 작 <진박타려도>에 보이는 동자의 모습과 비교되며, 모체가 긴 익선관을 쓰고 붉은 곤룡포에 목을 완전히 덮는 흰 베옷을 입은 왕의 모습(도9)은 1900년 조석진(趙錫晉, 1853-1920), 채용신(蔡龍臣, 1850-1941) 등이 이모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英祖御眞> 속 영조의 모습과 비슷하다.¹³ 그

¹³ 필자는 중국 그림에 표현된 제후 및 왕이 이러한 복식을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도6 작가미상, <사헌파진백만병도> 중 제5폭 병사들 모습



도7 서위(徐渭) 찬 『황명영렬전』 중 삽화,
16세기 중반 『고본소설집성(古本小說集成)』 193,
上海古籍出版社, 日本日光晃山窓眠堂藏明刻本影印,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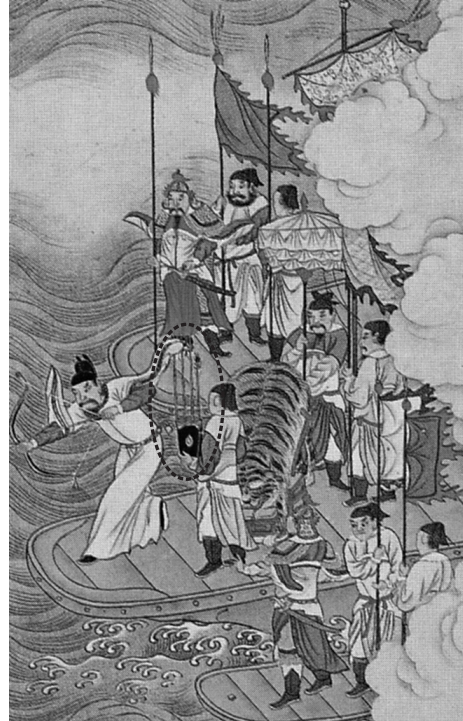
도8 주알교(周日校) 간행,
『삼국지통속연의』 중
<삼전여포>, 명나라 1591년
(『고본소설집성(古本小說
集成)』 260-263, 上海古籍
出版社, 日本日光晃山窓眠
堂藏明刻本影印 1990)

리고 장수와 병사들의 복식은 영조 재위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歷史故事人物畫冊》 속 장득만(張得萬, 1684-1764) 이 '度祖射龍'의 고사를 도해한 것

그림 속 부견의 모습은 이 그림이 조선에서 제작된 그림임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도9 작가미상, <사현파진백만병도> 중 제8폭 왕의 모습



도10 장득만, 《역사고사인물화책》중
〈도조사룡도(度祖射龍圖)〉(세부), 1720년대, 화책,
종이에 채색, 39×30cm, 삼성미술관 Leeum

으로 추정되는 그림과 흡사하여 주목된다(도6, 10).¹⁴ 장수와 병사 외에 깃발, 筒介의 표현 방식에서도 두 그림은 비슷하다. 특히 검은색 바탕의 사다리꼴에 네 모서리와 중앙에 금색 장식 있는 동개는 두 그림에 거의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도2의 하단, 도10의 중앙). <사현파진백만병도>에 보이는 인물 표현은 후대 그림들의 그것과도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平壤城奪還圖(도11)>에는 <사현파진백만병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장수 및 병사의 도상과 전투 장면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무기를 휘두르는 인물들의 모습 외에 중국 판화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어깨에만 착용한 갑옷,

¹⁴ 《역사고사인물화책》의 성격,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첩의 표지, 장황 방식, 그림의 크기(39×30), 그림 좌우 하단 모퉁이에 화가 이름을 적는 방식, 화풍에서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萬古奇觀帖》(38×30)과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韓後邦(18세기 초 활약), 秦再奚(?-1733 혹은 1734), 장득만, 張繼萬(1694-?)의 이름이 두 화책에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이 두 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미나는 《만고기관첩》의 제작 연대를 1720-30년대로 추정했는데, 이를 따른다면 《역사고사인물화책》 역시 이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劉美那, 「中國詩文을 주제로 한 朝鮮後期 書畵合璧帖研究」(동국대학교대 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p. 138-144.



도 11 작가미상, <평양성탈환도>, 18세기 중후반,
10폭병풍, 비단에 채색, 96.7×329.5cm,
고려대박물관



도 12 김덕성의 《중국소설회모본》 중
<한왕중시문죽>, 1762년, 책, 종이에 먹,
28×19cm, 국립중앙도서관

검은색 두건 등 복식의 표현 방식에서 두 그림은 유사성을 보인다. 1762년에 제작된 《중국소설회모본》 속 <漢王中矢捫足>(도 12)에 보이는 창을 겨누는 장수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은 중국의 판화나 소설 삽화보다는 <사헌과진백만병도>를 비롯하여 <度神龍圖>, <평양성탈환도>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인물들의 모습과 좀 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¹⁵

¹⁵ 김상업은 《중국소설회모본》이 당시 중국에서 전래된 白話小說의 삽화를 모아놓은 화첩으로 중국의 소설 삽화가 조선 후기 회화에 미친 영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라고 평가하였다(金相燁, 「김덕성의 《中國小說繪模本》과 朝鮮後期 繪畫」, 『미술사학연구』 207, 한국미술학회, 1995, p. 49). 그러나 중국 백화소설의 삽화는 각 작품마다 서로 다른 각법, 화풍, 양식을 보이며 그림의 격도 작품마다 편차가 크다. 이에 비해 《중국소설회모본》 속 삽화들은 모두 동일한 화풍, 양식, 書格을 보인다. 이는 이 책을 만든 화원들이 단순히 중국의 소설 삽화를 모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일부 삽화들은 앞서 소개한 <역사고사인물화책>과 <만고기관첩>에 실린 몇몇 그림의 도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중국소설회모본》에 수록된 <江中受辱>, <潁川洗耳>, <武陵桃園>은 <역사고사인물화책>에 실린 장득만의 그림 『김홍도와 궁중화가』, 호암미술관, 1999, p.



도13 작가미상, 〈친정계병〉 중 제7폭 부분, 1691년, 8폭병풍, 비단에 채색, 145×480cm, 개인소장

〈사헌파진백만병도〉에는 故事의 시간·공간적 배경을 이루는 산수가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고사의 시간적 배경인 겨울을 표현하려 한 듯 이 그림의 작가는 청록 안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거친 묵선으로 산과 바위의 형태를 만든 뒤 옅은 황갈색으로 산과 바위의 질감을 나타내었으며, 부분적으로 먹과 청록의 안료, 흰 호분을 섞어 칠하여 겨울의 메마른 산세를 표현하였다(도1, 14). 이처럼 이 그림에는 17세기 후반까지 유행했던 ‘단선점준’이라든지 절과 화풍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산수 표현은 숙종대 이전 산수화

풍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새로운 표현요소라고 생각된다. 험준한 산세를 표현하려 한 듯 기괴한 모양의 바위와 산을 중첩되게 많이 그린 방식에서는 『名山圖』, 『太平山水圖』, 『海內奇觀』 등이 무렵에 수용되었던 중국의 산수 판화들과의 관련성을 지적해볼 수 있으나 당장 이 그림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¹⁶

이 그림과 직접 비교될 수 있는 산수화풍을 가진 그림으로는 먼저 1691년 작 《親政契屏》 중 제7폭 그림이 있다. 이 그림에 보이는 절과 화풍의 잔재로 보이는 기울어져 넘어질 듯한 바위, 그 아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윤곽선을 그린 뒤 그 윗부분에 흰색을 칠하여 그려낸 원경의 산,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린 강변은 〈사헌파진백만병도〉의 상단 좌우

45), 《만고기관첩》의 〈巢父洗滌圖〉, 〈武陵尋源圖〉와 각각 비교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인물, 산수 표현에서 《중국소설회모본》은 위 두 첩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실은 《중국소설회모본》이 18세기 중반 이전에 제작된 궁중회화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필자의 가정이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는다면 《중국소설회모본》은 중국 소설 삽화의 유입뿐 아니라 18세기 초·중반 궁중회화의 성격을 조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논고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6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이들 판화가 당시 회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들을 참고할 수 있다. 고연희, 『조선 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일지사, 2001), pp. 73-98; 박정에, 「17-18세기 중국산수관화의 형성과 그 영향」, 『정신문화연구』 113(2008), pp. 131-162; 이순미, 「조선시대 『海內奇觀』의 수용과 회단에의 영향」, 『강좌미술사』 31(2008), pp. 205-224.



도14 작가미상, <사헌파진백만병도>중 제4폭 바위 모습



도15 장득만, 《만고기관첩》중 <촉도난도>, 1720년대, 화책, 종이에 채색, 39×30cm, 삼성미술관 Leeum

산수 표현과 비교될 수 있다(도1의 제7·8폭 상단 도13). 다음으로 <사헌파진백만병도>의 제4폭 하단 부분에 보이는 산등성이가 밝게 드러나고 그 양쪽으로 산 주름이 촘촘히 잡혀 있으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점이 흩어져 있는 언덕, 그리고 갈색의 나무줄기에 짙은 녹색 잎이 달려 있는 침엽수의 표현은 1720년대 초에 제작된 《萬古奇觀帖》중 <蜀道難圖>의 산수 표현과 비슷하다(도14, 15).¹⁷ 이처럼 <사헌파진백만병도>는 화풍으로 볼 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궁중회화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림이다.

¹⁷ 《만고기관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들을 참조할 수 있다. 劉美那, 위의 논문, pp. 115-183; 임계완 역주, 『삼성미술관Leeum 소장 고서화제발 해설집』(삼성문화재단, 2006), pp. 130-171.

IV. 숙종과 역사고사도

『列聖御製』에는 숙종이 쓴 서화 관련 시문이 170편 가까이 실려 있으며, 이 중 회화 관련 시문이 130여 편을 차지한다.¹⁸ 이들 시문은 숙종이 상당한 양의 그림을 소장하고 감상하였음을 말해주며 숙종을 조선시대 역대 국왕 중 회화를 가장 애호하였던 왕으로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열성어제』에 수록된 숙종의 회화 관련 시문을 분석해 보면 숙종이 감상한 그림 중 〈사헌파진백만병도〉의 경우처럼 역사고사도로 분류될 수 있는 그림은 총 48점에 달한다(표1 참조). 그리고 48점 대부분은 중국의 역사고사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고사도 대부분을 막연히 중국에서 수입된 그림 혹은 국적 불명의 그림으로 파악하였다.¹⁹ 이러한 인식은 숙종을 그림 애호가 혹은 收藏家 정도로만 평가했던 일반적 인식과도 그 성격을 같이한다.²⁰ 그러나 숙종이 중국 그림임을 언급한 〈朱雲折檻圖〉와 화제에서 이미 중국 그림임이 명시된 〈唐書三顧草廬〉 등을 제외하면 이들 역사고사도 중 중국 그림으로 단정할 수 있는 예는 거의 없다.²¹ 따라서 이들 중국고사도 대부분을 막연히 중국에서 수입된 그림 혹은 국적 불명의 그림으로 보았던 인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그림들이 중국이 아닌 조선에서 제작된 그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숙종의 제화시문은 조선시대 역사고사도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숙종은 그림 애호가, 수집가였을 뿐 아니라 역사고사도 제작을 직접 주문하거나 그 제작에 관여했던 회화 후원자이기도 하였다. 『肅宗實錄』, 『열성어제』 등에는 숙종이 그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일이 빈번하게 확인된다.²² 숙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蠶織圖〉, 〈稼穡艱難圖〉, 〈十二月圖〉 등 풍속화 계통의 그림 뿐 아니라 훗날 영조(英祖, 1724-1776)가 되는 延祚君과 연령군(延齡君, 1699-1719)의 초상을 제작케하여 하사하였다.²³ 이 외에도 〈岳飛像〉,

¹⁸ 진준현, 「숙종의 서화취미」, 『서울대학교 박물관년보』 7(서울대학교박물관, 1995), pp. 4-11; 金南基 「『列聖御製』에 실린 조선 국왕의 題書詩 연구」, 『한국문학논총』 34(2003), pp. 333-335.

¹⁹ 진준현은 순수 회화 관련 시문을 138편으로 파악하면서, 138편 중 조선회화와 관련된 것이 47편, 중국회화와 관련된 것이 28편, 국적미상 회화와 관련된 것이 63편이라 하였다(진준현, 앞의 논문, p. 11).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은 그가 시문의 書題만을 보고 그림의 국적까지 판단 내렸기 때문이다.

²⁰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 서화 수장과 미술 후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대원사 2005), pp. 131-144.

²¹ 〈당화삼고초려〉에 대해서는 진준현, 위의 논문, p. 21과 『列聖御製』 3, pp. 107-108 참조.

²² 진준현, 앞의 논문, p. 25.

²³ 〈잡직도〉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정병모, 「朝鮮時代 後半期의 耕織圖」, 『미술사학연구』 192(1991), pp. 37-38 참조할 수 있다. 숙종은 〈가색간난도〉를 李翺(1626-1688)의 집안에서 취해 감상한 뒤 그 병풍이 너무 크고 두

표 1 『열성어제』중 역사고사도 관련 속종의 시문

주제	화제	출전	구분	그림 내용
왕실의 장수, 부귀영화의 염원	題郭子儀行樂圖陽王子	권10	시	郭子儀(697-781)를 도제한 그림으로 추정.
	題郭汾陽行樂圖	권11	시	
	題圖屏	권12	시	
천하의 평정, 국가의 길조, 왕의 위엄	題九里山十面埋伏圖	권10	시	漢나라 군대가 楚王 項羽(B.C. 232-B.C. 202)의 군사를 九里山에서 대북해 물리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 속종은 이 싸움으로 전쟁이 끝나고 백성이 편안해졌다고 말하였음.
	題唐史志圖	권11	시	唐나라 창업에 큰 공을 세운 唐太宗의 주요 事蹟을 표현한 그림으로 추정.
	題孟津白漁入龍舟圖	권11	시	周 文王(B.C. 12세기 활동)이 商의 紂王(B.C. 12세기 활동)을 토벌하기 위해 孟津을 건널 때 흰 물고기가 배 안에 들어온 고사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추정(『淮南子』 권6, 『覽冥訓』). 이 고사는 상나라가 주나라로 歸依할 징조로 해석되었음. 속종은 周의 건국을 ‘하늘의 계시(天啓)’라고 말하였음.
	題黃龍負舟圖	권11	시	우 임금이 갑작스런 용의 출현에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본문 주31) 참조.
	題陳搏墮驢圖	권12	시	陳搏(?-989)이 宋太宗(976-997)의 등극 소식을 듣고 기뻐하다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작품 현존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題劉孫駐馬圖	권12	시	삼국시대의 두 영웅 孫權(182-252)과 劉備(161-223)가 말을 탄 채 遭遇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
	題皇明英烈傳圖八幅屏障	『별편』 권2	문	『황명영렬전』의 주요 삽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8폭 병풍 그림으로 추정(본문 주11) 참조.
군왕의 경계	題阿房宮圖	권10	시	秦始皇이 축조한 阿房宮을 그린 그림으로 추정. 속종은 진시황의 帝業이 32년으로 끝났고, 진나라의 도읍인 咸陽은 한 번에 불탔음을 언급하며 제업의 허망함을 이야기하였음.
	題荊軻大鬧秦宮圖	권11	시	자객 荊軻가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으로 추정(본문 주) 49 참조).
	題吳王寵幸西施圖	권11	시	吳王 夫差가 越王 句踐이 보낸 西施에게 마음을 빼앗겨 구천에게 패한 고사를 소재로 한 그림.
	題牽牛過堂下圖	권11	시	『孟子』의 『梁惠王上七章』에 기술된 맹자와 제 선왕이 나눴던 대화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추정(본문 주50) 참조).

개로 나누어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어 화공에게 명하여 병풍 하나에 그려 다시 제작하도록 하였다(『列聖御製』 2, pp. 399-400, “仍付玉署 使之圖進……第屏制太廣 且分以二 之不便於觀者 更命畫工 換作一屏”). 또한 속종은 『詩經』의 『國風 七月篇』의 뜻을 대략 본떠 <십이월도> 병풍 2개를 그려 만들도록 하였다(『列聖御製』 3, pp. 32-34, “子獨以十二月 略做詩經七月之義 描作二屏”).

	讀岳武穆王精忠錄有感吟成四律二絕題卷首 觀首卷宋徽欽北行沙漠圖有感先題一律	권11	시	<송취흠복행사막도>는 1709년에 간행된 『繪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의 卷首에 실린 그림으로 휘종과 흠종(欽宗, 1125-1127)이 금나라에 잡혀가는 모습을 도해한 것으로 추정. 책은 嘉靖年間(1521-1566)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서는 1584년, 1709년, 1769년 등 세 번 改刊되었음. 이 그림은 1709년본에만 실렸던 것으로 추정. 현전하는 1584·1769년본에는 실려있지 않음.
	題漢武帝遊行至海上圖	권12	시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바다 위를 건너는 한나라 무제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으로 추정. 속중은 무제가 큰 업적을 세운 군주였음은 분명하나 신선을 찾느라 민생을 회피한 그의 과오를 지적하였음.
	題射支破秦百萬兵圖	권12	시	본문 참조.
	題七十二侯圖	권12	시	중국의 역대 제후들의 초상을 모은 그림으로 추정.
	歷代君臣圖傷小帖序	권14	문	중국의 역대 군신들의 초상을 모은 첩으로 중국에서 전래된 본으로 추정.
	齊威王奉卽墨大夫烹阿大夫圖小序	권14	문	제나라 위왕이 즉목을 봉후로 봉하고, 아대부를 팽형으로 엄히 다스린 고사를 도해한 그림임(본문 주 29) 참조.
	題唐玄宗觀無逸圖	권15	문	당 현종이 현신 승경이 쓴 『서경』의 「무일편」을 내전에 걸어 두고 이를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임(본문 주 38) 참조.
	題隋煬帝遊行圖	권15	문	수 양제가 사치스럽게 큰 배를 만들어 유람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임(본문 주 39) 참조.
	養正圖說	권16	문	『양정도해』의 삽화(본문 주 28) 참조.
벌적, 복수	題赤壁鏖兵圖	권10	시	蜀·吳 연합군이 적벽에서 曹操(155-220)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 속중은 이 싸움에서 조조가 살아남은 일을 아쉬워하였음.
	題句踐嘗膽圖	권10	시	臥薪嘗膽의 고사를 도해한 그림으로 추정(본문 주 48) 참조.
	題城上拜天子圖	권12	시	전쟁 패배로 당나라 군사가 퇴각했을 때 고구려 장수 梁萬春(7세기 초 활동)이 승벌의 예를 다하자 당 태종이 양만춘의 공을 격려하였다는 고사를 도해한 그림으로 추정.
충신, 현신의 등용	題朱雲折檻圖	권9	시	漢代의 賢臣 朱雲(B.C. 1세기 활동)이 成帝(B.C. 32-B.C.7)에게 直諫을 한 고사를 도해한 그림.
	題荀息諫晉靈公圖	권9	시	晉 靈公(B.C. 7세기 활동)이 9층의 臺를 지으려 할 때 荀息(?-B.C. 651)이 이를 반대하며 간언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春秋別傳』 권5).
	題細柳營勞軍圖	권12	시	漢나라 장수인 周亞夫(B.C. 2세기 말 활동)가 細柳에 주둔하여 군영을 설치했을 때 그 규율을 매우 엄정히 했다는 고사를 도해한 그림으로 추정(『史記』 권10, 「孝文本記第十」). 속중은 장수로서의 직분을 다한 주아부를 칭송하였음.
	題召烈遇司馬徽圖	권12	시	蜀漢의 유비가 司馬徽(173-208)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

	題壁書	권12	시	4개의 역사고사를 도해한 그림. 이들 그림들은 총명한 군주의 어진 신하 등용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음. 단, 세 번째 화제는 외삼촌과의 이별의 정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추정. 1. 窮耕有幸: 湯 임금의 제 상으로 등용했던 伊尹이 밭가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추정(『맹자』「萬章章句上」). 2. 夢賚良碼: 商의 高宗이 농사짓는 傳說을 발탁해 크게 등용한 일을 도해한 그림으로 추정(『書經』「說命上九章」). 3. 訪于康公渭陽: 秦 康公(B.C. 659-B.C. 621)이 太子로 있을 때 외삼촌인 晉 文公(B.C. 637-B.C. 628)이 秦에 망명해 와 있었는데, 문공이 다시 晉으로 돌아갈 때 강공이 渭水까지 나와 문공을 배웅한 고사를 도해한 그림(『詩經』「國風·秦風」「渭陽」). 4. 三顧草廬: 유비의 諸葛亮(181-234)의 三顧草廬 고사를 도해한 그림.
	朱雲折檻圖贊	권16	문	漢代의 賢臣 朱雲이 成帝에게 直諫을 한 고사를 도해한 중국 그림으로 추정.
	文丞相圖像贊	권16	문	元에 항거하여 충절을 지켰던 南宋代 忠臣 文天祥(1236-1282)을 그린 그림.
계갈공명	題蜀相伐魏圖	권11	시	蜀漢의 諸葛亮이 위나라를 정벌하려 하였던 고사를 도해한 그림으로 추정. 숙중은 계갈량의 죽음으로 좌절된 촉한의 위나라 정벌을 슬퍼하였음.
	題三顧草廬圖	권12	시	삼고초려의 고사를 도해한 그림으로 추정.
	唐畫三顧草廬贊	권16	문	삼고초려의 고사를 도해한 중국 그림으로 추정.
	題諸葛武侯圖贊	권16	문	계갈량을 그림. 그림 현전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우	題壽亭侯關雲長圖	권9	시	關羽(?-219)를 그린 그림으로 추정.
	題關王圖	권9	시	관우를 그린 그림으로 추정.
	予偶得二幅刺繡乃關武安王乘赤馬提青龍刀圖也噫武安王精忠大節予之素所愛重不可褻玩也遂略加刺繡一作得乘赤之圖一作千里獨行之圖分粧兩障子各題一絕句	권11	시	숙중은 관우를 도해한 지수 그림 두 점을 취했는데, 이를 다소 가감하여 세로운 그림 두 점을 얻음. 한 점은 관우가 赤免馬를 탄 그림이며, 다른 한 점은 <千里獨行圖>임.
	武安王圖像銘并小序	권15	문	관우를 그린 그림으로 추정.
악비	題武穆岳鄂圖	권9	시	금나라에 抗戰한 南宋 장수 岳飛(1103-1141)를 도해한 그림.
	岳鄂王圖像贊	권16	문	악비를 그린 그림.
	寫本精忠錄岳王像贊	권16	문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에 삽화로 실린 악비상을 그린 그림으로 추정.
기타	題王嬙圖	권12	시	漢나라 王昭君(B.C. 1세기 활약)의 고사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추정.

	題南郭隱几圖	권15	문	『莊子』, 『齊物論』에 실린 한 편의 이야기를 도해한 그림.
	題朱晦菴圖贊	권16	문	朱子(1130-1200)를 그린 그림.
	箕子遺像詩	권12	시	箕子朝鮮을 세운箕子를 그린 그림.
※ 문학고사도 (총 8편)	題織女圖(권0), 題蘭亭圖(권11), 題滕王閣圖(권1), 次唐詩畫譜中李白春景韻(권11), 次唐詩畫譜中李白夏景韻(권11), 題西園雅集圖(권12), 題漁樵問答圖(권12), 國舅光成府院君第二子校理金鎮圭之畫格殆無異於中原名筆矣厥後偶見其好幼學普澤手描則畫法相傳難弟難兄蓋儒者之於丹青等事不專學習而其爲精妙如此亦天才也爰取唐詩中獨坐有篁裏彈琴夏長嘯與眞珠簾外梧桐影燈底裁縫剪刀冷二句爲題并素練數幅使之畫進圖成作二障子遂以絕句各并于首(권9)			

〈善惡圖〉, 〈唐玄宗觀無逸圖〉, 〈齊威王奉卽墨大夫烹阿大夫圖〉, 〈牽牛過堂下圖〉 등 역사고사도 제작을 직접 지시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숙종이 역사고사도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사헌과진백만병도〉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 역사고사를 소재로 한 궁중회화들과 마찬가지로 숙종의 구체적 주문에 의해 제작된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숙종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고사도 제작을 지시한 경우는 먼저 다음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697년 7월 1일 숙종은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를 감상하고 서문을 작성하였다.²⁵ 이때 숙종은 서문 서두에 이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무릇 근래에 (이 이야기들) 도해한 것 중 이러한 기상을 터득하여 묘사한 경우에 높은 곳에 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威王이고, 머리를 구부린 사람은 卽墨이고, 팽형을 당하는 사람은 阿大夫이고, 戮屍를 기다리는 사람은 일찍이 남들에게 아부했던 이들이다.²⁶

먼저 숙종이 감상했던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는 『養正圖解』에 수록된 동일한 고사의 삽화인 〈旌賢去姦〉(도 16)과 매우 비슷한 구성을 지닌 그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정현기간에 묘사된 모든 인물들의 모습이 숙종의 서문에 묘사된 그림 설명과 거의 부합하기 때문이다. 『양정도해』(1590년대 간행)는 명나라 초빙(焦竑, 1541-1620)이 賢

²⁴ 숙종은 화공에게 명해 岳飛(1103-1141)의 상을 따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龍樓에 펼쳐놓게 한 적이 있다(『列聖御製』2, pp. 382-385, “嘗命畫工圖像 作障子 展龍樓”). 〈善惡圖〉, 〈당현중관무일도〉,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 〈견우과당하도〉에 대해서는 주 40), 주 38), 주 29), 주 50)를 참고할 수 있다.

²⁵ 『列聖御製』2, p. 657. 이 글 말미에는 “歲在丁丑秋七月朔朔職”라 적혀 있어 숙종이 1697년 7월 1일에 이 서문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²⁶ 『列聖御製』2, p. 656, “夫近者於圖解中 得描此氣象 其高拱者 威王也 其俯首者 卽墨也 其就烹者 阿大夫也 其待戮者 嘗譽人也.”

君, 賢臣의 언행 가운데 본받을 만한 고사를 모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주해를 덧붙인 책이다.²⁷ 『양정도해』에 수록된 <정현거간>은 齊나라 위왕(威王, B.C. 378-B.C. 320)이 청렴하고 강직한 신하인 卞墨을 봉후로 봉하고, 고위 관료에게 사사로이 뇌물을 바친 阿大夫를 烹刑으로 엄히 벌했더니 제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는 고사를 주제로 한 것으로 지금은 전하지 않는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²⁸ 서문에서 숙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臈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니, 이에 큰 비단을 마련하여 병풍을 만들고, 이 일을 서술하여 (병풍의) 앞머리에 실어, 산수 그림을 대신하여 가까이 두도록 하였다. 순리(循吏,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 한 명을 포상하고, 貪官 한 명을 벌주는 것은, 판단성 있는 제나라 왕이 私로 인해 公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그림에 대한 나의 생각이니, 회화가 ‘다스림과 교화(治化)’에 어찌 도움이 적다고 하겠는가?²⁹

숙종이 이 그림에 서문을 썼던 바로 그날 조정에서는 여러 道內 고을 수령들이 田稅를 바치지 않고 재상들에게 청탁하여 그 벌을 면하기를 도모하는 일이 잦아진 것을 두고 숙종과 신하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 이때 숙종은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일곱



도16 초빙 찬, 정운봉 그림, 『양정도해』 중 <정현거간>, 1590년대 (『완위별장(宛委別藏)』 62, 江蘇古籍出版社, 1988)

²⁷ 『양정도해』의 삽화는 丁雲鵬(1547-1628)이 그렸다. 이 책의 구체적 제작 배경과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Julia K. Murray, *Mirror of Moral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p. 88-93 참조.

²⁸ 1704년 숙종은 『양정도해』를 감상하고 서문을 쓴 뒤 책에 수록된 고사를 일일이 언급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숙종이 이 책을 숙독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列聖御製』 3, pp. 83-86). 1749년에 영조의 명으로 이 책이 간행되었으나, 이때 삽도는 빠졌다

²⁹ 『列聖御製』 2, pp. 656-657, “今日臈法之不嚴 良民之不保 予以圖大練作障子 敘其事 弁之首 欲爲代山水而真左右褒一循吏 誅一貪官 思齊侯之果斷 不以私而掩公 此其子繪畫之意也 於治化 豈曰少補之哉.”

고을의 수령에게 杖刑을 집행할 것을 결정하였다.³⁰ 1697년 7월 1일 숙종은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를 감상한 후 이 그림을 御座 뒤에 펼쳐두었으며, 동시에 비리 수령들을 가려내어 엄히 벌하였다. 따라서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는 관리들로 하여금 불법과 비리, 그리고 청렴의 결말을 각각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리들의 불법과 비리를 금지시키고 청렴한 행동을 조장하려는 숙종의 정치적 의도 속에 제작된 그림으로 추정된다. 물론 숙종 자신이 제위왕처럼 賢姦을 분별할 수 있는 훌륭한 군주임을 과시하려는 의도 역시 이 그림 속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고사도를 제작하게 한 사례는 다음 예에서도 확인된다. 1708년 숙종은 <黃龍負舟圖>를 감상한 뒤 시를 썼다.

塗山大會禮纒終 도산에서 큰 회맹의 예식이 끝나자마자,
 玉輅臨江忽遇風 임금의 수레가 강에 이르니 문득 바람이 부네.
 神物蜿蜒出水上 신물은 꿈틀꿈틀 물 위로 나와
 光芒鱗甲照舟中 번쩍이는 비늘 갑옷을 배 가운데 비추었네.
 威靈所及心皆怕 위엄과 신령함이 미치니 모두들 마음으로 두려워하건만,
 顏色如常帝獨聰 안색이 평상시와 같은 우임금 홀로 총명하시도다.
 雷雨不迷稱舜德 뇌우에도 미혹하지 않아 순임금 덕을 칭송했으니,
 聖人度量自然同 성인의 도량은 본디 한 가지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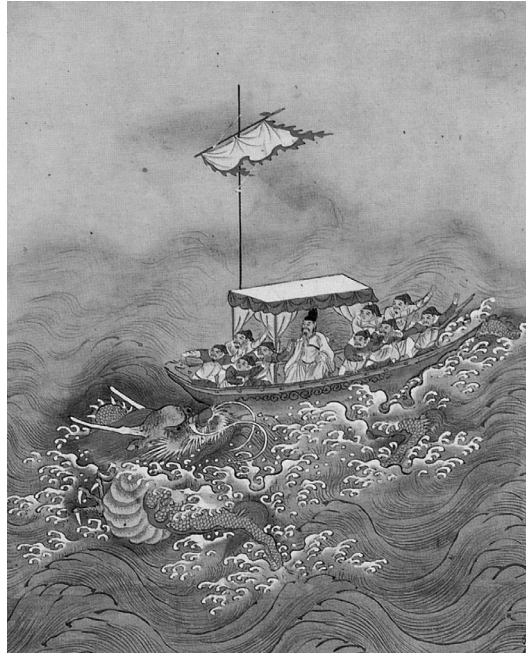
숙종이 감상한 <황룡부주도>는 오늘날 전하지 않아서 이것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고사인물화책》에 수록된 장계만(張繼萬, 1694-?)의 그림 한 점은 현전하지 않는 <황룡부주도>의 원 모습을 추정케 하는 흥미로운 작품이다(도17).³² 시의 내용처럼 장계만의 그림에는 배를 등에 업은 채 배 밑을 비추고 있는 황룡이, 그리고 갑작스런 용의 등장에 놀라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달리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수엄을 쓰다듬고 있는 한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황룡부주도>는 그림의 구성 및 화풍을 고려해 볼 때 장계만의 그림과 상당히 유사한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

³⁰ 평양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역, 『이조실록』 277(여강출판사, 1993), p. 385.

³¹ 『列聖御覽』 2, pp. 381-382, “塗山大會禮纒終 玉輅臨江忽遇風 神物蜿蜒出水上 光芒鱗甲照舟中 威靈所及心皆怕 顏色如常帝獨聰 雷雨不迷稱舜德 聖人度量自然同.”

³² 이 그림은 호암미술관이 펴낸 『용, 신화와 미술』(호암미술관, 2000)에 실려 있다. 제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된다. <황룡부주도>는禹 임금의 治水 사업을 끝낸 후 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황룡이 갑자기 나타나 배를 등에 지고 강물 속에서 솟구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우 임금만이 태연히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 힘을 다해 백성들을 보살폈다. 사는 것은 天性이요 죽는 것은 天命이니 내 어찌 용을 두려워하겠습니까(吾受命於天 竭力以養人生性也 死命也 余可憂於龍焉)?”라고 했더니 용이 사라졌다는 고사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³³ 그런데 이러한 우 임금의 모습은 숙종이 <황룡부주도>에 제시를 썼던 시점에 그가 밟았던 일련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숙종이 <황룡부주도>에 제시를 남긴 시점은 1708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 사이로 추정된다.³⁴ 1708년 6월 초 조선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숙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致祭를 하고, 正殿이 아닌 타처에 머무르며 수라를 거르는 등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26일이 되어서야 마침내 흠족한 비가 내려 숙종은 29일에 정전으로 환어하고 수라를 들었다. 극심한 가뭄이 마침내 해결되던 바로 그 시점, 숙종은 <황룡부주도>를 감상하고 그 감상기를 남겼던 것이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난관을 극복하고자 했던 숙종의 이 모습은 <황룡부주도> 속 치수에 능했고 격변에도 의연히 대처



도 17 장계만, 《고사인물화보》 중 <황룡부주도>, 1720년대, 화책, 종이에 채색, 39×30cm, 삼성미술관Leeum

³³ 鄭英昊 역, 『어찌 춘추』(자유문고, 1993), pp. 420-422.

³⁴ 이처럼 이 시가 제작된 날짜를 좁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열성어제』에는 시문이 날짜 순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황룡부주도」 바로 앞에 수록된 시는 6월 29일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歲在戊子夏六月庚午出宿于集慶堂越三日癸酉將有事于南郊蓋閏旱也翼日辛未雨庶糞稿苗可救也遂因銀臺之啓始停耕耨之禮第二句不曰集慶而稱葵閣耨耨者叶韻也」이다. 이 시에는 가뭄의 해결에 대한 숙종의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제황룡부주도」 바로 다음에 수록된 시는 7월 7일 무렵 숙종이 沈廷輔(17세기 말-18세기 초 활약)에게 써서 준 것으로 추정되는 「七夕」이다.

했던 우 임금의 모습과 겹쳐진다. 숙종은 <황룡부주도>에 제시를 쓰면서 이 그림의 제작을 직접 지시하였음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그림 역시 숙종의 주문으로 제작된 그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중국의 역사고사는 현실의 반영이었다. 경전, 문집, 사서에 나오는 다양한 역사고사들은 그 자체로 ‘古’가 되지 않고, 현실에 끊임없이 인용되고 적용되면서 ‘新’이 되었다. 새로운 정치 이념을 표방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반대할 때 사람들은 어김없이 역사고사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하였다.³⁵ 역사고사도 제작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위의 두 예는 숙종이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알리거나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역사고사를 그림으로 ‘인용’한 예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숙종은 역사고사도 제작을 직접 지시하였다. 때로는 구체적 정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왕으로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개인적 신념 및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는 특정한 역사고사를 선정하고 그 도해를 빈번하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진 시기의 역사고사 한 편을 다룬 <사현과진백만병도>는 자신이 처한 정치 상황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정치 행위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정치 철학이나 도덕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숙종의 주문 혹은 지시로 제작된 그림으로 추정된다.

V. <사현과진백만병도>의 제작 목적

숙종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현과진백만병도>의 제작을 주문하였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점이 명확하게 설명되면 반대로 숙종이 자신의 정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의 제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 역시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그림은 失政을 통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어리석은 군주 부견을 경계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사서들에서 부견은 선명후암군(先明後暗君: 처음에는 선정을 펼쳤으나 나중에는 큰 과오를 범한 임금)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

³⁵ 조선시대 역사고사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민길홍, 「정선의 고사인물화」, 『항산 안취준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1-』(사회평론, 2006), pp. 292-302; 조규희, 「1746년의 그림: ‘시대의 눈’으로 바라본 <장주묘암도>와 규장각 소장 『관동십경도첩』」, 『미술사와 시각문화』 6(2007), pp. 225-234.

부건을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한 예를 『成宗實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기사는 성종대(成宗代, 1469-1494)에 안침(安琛, 1444-1515) 등이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의 빈번한 정치 간섭을 두고 상소한 내용이다.

전하께선 마야흐로 부건의 載記를 보시는데, 청컨대 부건의 처음과 나중을 살펴보소서. 부건이 성할 때는 6州를 차지하여 위엄이 中原에 떨치고 異域을 賓服시켜서 스스로 만세의 帝王이라고 일컬었는데, 하루아침에 세력을 잃자 흠이 무너지듯, 기와가 깨어지듯 하였으니, 治亂과 興亡의 기틀이 呼吸 사이에 숨어 있어서 한 일의 실수에 결정되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아직 어지러워지지 않고 위태로워지지 아니함에 앞서서 미리 말하고 지극히 논하여 上下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³⁶

여기에서 부건을 선명후암군으로 보는 그의 인식을 명확히 읽을 수 있다. 마이클 로저스(Michael C. Rogers)는 『진서』에 부건의 운명이 판가름 난 것으로 기술된 비수 전투가 실제로는 전진의 국운을 좌우했던 전투가 아닌, 오히려 당 태종에게 고구려 정벌의 위협을 설파하려는 일군의 『진서』편찬자들에 의해 다소 과장되게 서술된 전투라고 주장하였다.³⁷ 이는 비수 전투가 『진서』편찬 당시부터 무리한 전쟁 도발을 감행하여 국가 패망의 단서를 제공했던 지도자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열성어제』에 실린 숙종의 제화시 혹은 제화문을 살펴보면 숙종이 감상한 그림 중 이처럼 선명후암군 혹은 실정을 범해 한 국가의 쇠퇴를 초래한 暗君의 일을 경계하는 뜻을 담은 그림이 상당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대표적인 그림으로 <당현종관무일도>, <隋煬帝遊行圖>가 있다. 먼저 1708년에 제작된 <당현종관무일도>는 당 현종(玄宗, 712-756)이 賢臣 송경(宋璟, 663-737)이 쓴 『書經』의 「無逸篇」을 內殿에 걸어 두고 이를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숙종은 이 그림의 제작을 직접 지시했고 완성된 그림을 보며 어진 임금에서 어리석은 군주가 된 당 현종을 경계하였다.³⁸ 『양정도해』에 수록된 <觀圖白警>(도18)은 숙종이 감상한 <당현종관무일도>의 모습을 추정케 하는 그림이다. 다음으로 숙종은 <수

³⁶ 『이조실록』97, pp. 218-219.

³⁷ Michael C. Rogers, "Prolegomena, Including a Study in Exemplar Historiography," *The Chronicle of Fu Chien*, pp. 64-69.

³⁸ 『列聖御覽』3, p. 14. 한편, 「무일편」은 주나라 周公이 成王에게 군주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지은 글로 안일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 18 초광 찬, 정운봉그림,
『양정도해』 중 <관도자경>,
1590년대(『완위별장(宛委別藏)』62,
江蘇古籍出版社, 1988)

양제유행도)를 감상하면서 隋 양제(煬帝, 604-618)의 실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지적하며, “국가를 소유한 자 이를 경계하지 않겠는가(有國家者不可戒哉)?”라고 스스로 되뇌었다.³⁹ 명나라 장거정(張居正, 1525-1582)이 편찬한 『帝鑑圖說』(1570년대 간행)에 수록된 <遊行江都>(도 19)는 수 양제가 사치스러운 배를 만들어 유람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수양제유행도>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의 그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은 적어도 17세기 말에는 『제감도설』을 열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이 외에도 <宋徽欽北行沙漠圖>, <吳王寵幸西施圖>, <漢武帝遊行至海上圖>에서도 숙종은 실정을 범한 암군들을 소재로 한 그림을 감상하였다(표 1 참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현과진백만병도>는 북중국의 통일을 이루고 내정 강화를 도모했으나 무리하게 동진 정벌을 감행함으로써 전진의 쇠망을 야기한 전진 왕 부견의 실정을 교훈 삼기 위해 숙종이 그 제작을 직접 지시한 그림이 아닐까

한다. 숙종은 1715년 봄 <사현과진백만병도>를 감상하였고, 1711년 1월경에는 이 그림과 동일한 소재로 시 「사현대과진백만병우비수」를 지었다.⁴¹ 그 이전인 1710년 겨울에는 『東晉演義』를 읽고 6수의 시를 썼다.⁴² 이 중에는 동진 정벌을 강력히 반대하였던 채상 왕맹(王猛

³⁹ 『列聖御製』3, pp. 19-20.

⁴⁰ 『제감도설』은 명나라 張居正이 堯舜 이래 역대 帝王들의 행적 중 귀감으로 삼을 만한 사적 81건과 경계해야 할 사적 36건을 뽑아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고사 내용을 수록한 본문과 고사 내용을 표현한 삽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691년 11월 12일 숙종은 <善惡圖> 8폭병풍 2개의 제작을 지시하면서, 그림으로 그려질 16편의 고사를 직접 선택하였다(『이조실록』275, pp. 124-126). 그런데 이 중 14편의 고사가 『제감도설』에 수록된 것이다. 숙종이 직접 이 책을 보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위 사실은 <선악도>가 『제감도설』 속 삽화를 활용하여 제작된 그림임을 말해준다. 『제감도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Julia K. Murray, 위의 책, pp. 91-93 참조.

⁴¹ 『列聖御製』2, pp. 402-403. 이 작품은 세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⁴² 『列聖御製』2, pp. 396-397. 『東晉演義』는 『資治通鑑』중 東晉에 관한 사실을 한글로 기술한 책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규장각 청구기호: 古3350-87).



도 19 장거정 편찬, 『제감도설』 중 〈강도유행〉, 1570년대(『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14, 北京書目文獻出版社, 1988)

325-375)을 칭송하는 내용의 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숙종은 〈사헌파진백만병도〉를 감상하기 이전부터 부견의 고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진과 동진 간 전쟁에서 동진군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했던 사안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 외에 전진과 동진의 전투 혹은 부견의 고사를 다룬 작품이나 그 화제를 중국에서 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⁴³ 『양정도해』, 『제감도설』 등 다수의 역사고사를 도해한 명대 서적에서도 부견의 고사를 도해한 그림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헌파진백만병도〉가 소재나 주제, 그리고 도상 부분에서 중국 그림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그림의 소재나 주제는 숙종대 도화서 화원에 의해 비로소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한다. 부견을 소재로 한 그림은 이 그림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점들

⁴³ 중국 회화에서 사안은 주로 단독상 혹은 기녀를 동반한 모습으로 표현된다(Richard M. Barnhart, *Painters of the Great Ming: The Imperial Court and the Zhu School*, Dallas, Tex. : Dallas Museum of Art, pp. 300-302). 한국에서는 기녀를 동반한 사안의 모습을 그린 김홍도의 〈東山拂妓圖〉가 널리 알려져 있다(『鄺公文華』 6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5, p. 63, 146).

은 <사헌파진백만병도>가 일반적으로 그려지던 그림, 압군의 경계라는 보편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그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제위왕봉즉묵대부평아대부도>나 <황통부주도>의 경우처럼 숙종이 보다 구체적인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을 지시한 그림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추정이 될지 모르나 필자는 당시 숙종이 처한 정치적 상황의 조명을 통해 <사헌파진백만병도>가 그려지게 된 보다 구체적인 이유 혹은 배경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숙종은 1715년 봄 계위 41년에 접어들었다. 40년이 넘는 계위 기간 동안 숙종은 왕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격렬했던 당쟁을 타파하기 위해 탕평 정치를 실시했으며, 각종 제도·체제 개혁을 실천에 옮겼다.⁴⁴ 그러나 그가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北伐論’이었다. ‘북벌론’은 祖父 효종이 ‘復讐雪恥’의 기치 아래 야심차게 준비했던 청나라 공격론이다. 효종 사후 실질적인 북벌 논의는 종식되었지만 18세기까지 지배층의 통치이념으로서 북벌론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다만 ‘內修自強論’, ‘朝鮮中華主義’를 표방하여 민생 안정, 문화적 자강을 꾀하는 방식으로 그 이념 수렴이 이루어졌다.⁴⁵ 이러한 새로운 이념들은 사실상 대청 전쟁 포기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⁴⁶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내수자강론’, ‘조선중화주의’와 관련하여 청나라와의 무력 충돌을 지양하려는 숙종의 일관된 자세가 그의 題書詩文에서도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역사고사도 시문에서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숙종은 1704년 12월경 <句踐嘗膽圖>를 감상하고 다음 제발을 남겼다. 이 무렵 숙종은 조선중화주의의 이념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大韓設廳 설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⁴⁷

⁴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李相植,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고려대학교대 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p. 21-197; 이현진, 「조선 후기 宗廟 정비와 世室論 연구」(서울대학교대 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 115-253; 박광용, 「조선 후기 탕평 연구」(서울대학교대 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7-38; 鄭萬祚, 「朝鮮後期の 良役變通論」, 『東洋學』 27(1990), pp. 333-341.

⁴⁵ 정옥자,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邊大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삼영사, 1985), pp. 527-550; 이태진, 「조선 후기 대명 의리론의 변천」, 『아시아문화』 10(1994), pp. 5-10.

⁴⁶ 숙종 계위 후반기 숙종에 의해 주도된 정책 중 북벌의 실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1710년 본격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한 북한산성은 효종대 북벌 계획의 전초기지였던 남한산성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산성의 축조는 남한산성과 달리 전쟁이 아닌 내란에 대비한 국왕의 보장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李泰鎭,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의 變遷』(한국연구원, 1985), pp. 120-122 참조.

⁴⁷ 대보단 설치에 대해서는 정옥자, 앞의 논문, pp. 527-550 참조.

1707년 가을과 겨울 사이 숙종은 『孟子』 ‘梁惠王 상’ 편에 소개된 이야기를 도해한 〈牽牛過堂下圖〉 제작을 직접 지시하여 감상하고 다음의 글을 남겼다.

昔讀鄒書穀觶章 예전에 『맹자』의 穀觶章을 읽었는데,
 今將尺練畫過堂 이제야 한 자 길이 비단 가져다 堂을 지나는 것을 그렸네.
 仁心纔發宜推廣 어진 마음 잠시라도 드러났으면 미뤄 넓혀야 하건만,
 利欲旋昏卽悞亡 이익과 욕심에 눈멀어 곧 구속되어 없어지네.
 黜霸行王爲計濶 覇道를 멀리하고 王道를 행하는 것이 큰 계책이거늘,
 朝秦辟士講謀藏 秦의 조회를 받고 투지 넓히는 것이 감쳐둔 꿀꿀이라.
 道如孟子無知道 道에 있어 맹자처럼 ‘알았다’라고 말함이 없으니,
 每說齊宣痛恨長 매번 齊宣王에게 유세했던 것이 길이 한스럽구나(밑줄은 필자).⁵⁰

숙종은 〈구천상담도〉, 〈형가대요진궁도〉, 〈견우과당하도〉 등을 감상한 뒤 구천처럼 복수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가 하면, 형가의 암살 시도를 무모한 일로 일축했으며, 왕도를 행하고 폐도를 멀리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현과진백만병도〉는 도발-전쟁의 무용론 및 내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이들 그림들과 동일한 주제의 그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현과진백만병도〉는 일차적으로 무리한 전쟁 감행으로 전진을 패망에 이르게 한 암군 부건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쟁 도발의 뜻을 중지하고 內治·內修에 더욱 전념하고자 했던 숙종의 정치적 의지가 함축된 그림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구체적 제작 배경과 관련하여 숙종이 이 그림을 감상할 무렵 老論과 少論 간에 있었던 치열한 논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1715년 3월경 조정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갈등이 숙종에 의해 겨우 저지되는 일이 있었다. 1714년 8월 12일 일부 성균관 유생들이 소론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윤증(尹拯, 1629-1714)의 제문을 쓰면서 송시열에 대해 “공언은 실천하지 못했고 고론은 이론 것이 없었다(空言不躬 高論無成)”고 쓴 것을 문체 삼는 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노론과 소론 사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다.⁵¹ 이들은 최석정의 언급을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復讐大義를 비꼰 것으로 이해하

49 『列聖御製』2, pp. 351-352.

50 『列聖御製』2, p. 367.

고 숙종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은 최석정의 말은 단순히 송시열의 비방에 그치지 않으며 북벌론을 함께 계획했던 선왕 효종(孝宗, 1649-1659)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⁵² 같은 해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성균관 유생들은 상소뿐 아니라 捲堂을 통해 최석정의 탄핵을 주장하였으며, 안중필(安重弼, 1659-1746) 등 노론계 인사들이 이에 호응해 상소를 올렸다. 11월 13일에는 송시열의 문인이자 당시 산림(山林)의 거두였던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사직소를 올리며 이들과 함께 숙종을 압박하였다.⁵³ 12월 10일 숙종에게 환후가 있자 노론의 압박은 잠시 잠잠해졌으나, 곧 이듬해 3월 4일 권상하는 왕에게 글을 올려 다시 최석정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⁵⁴ 노론 및 성균관 유생들의 주장에 대해 숙종은 私的으로 쓴 글을 공론화할 수 없으며 최석정이 쓴 문장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최석정을 보호하였다. 그들이 효종까지 언급하며 숙종을 자극했지만 숙종은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북벌을 空言이라고 하였던 소론의 주장은 숙종에게도 불쾌한 말이었을 것이다. 북벌은 조부 효종이 내세운 대의명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시 상황에서 송시열 등이 주창한 바에 다시 무게를 실어주는 일에도 숙종은 주저하였다. 숙종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시효를 다한 북벌론의 가치를 두고 격렬한 담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에 있을 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숙종이 감상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사헌파진백만병도>는 전쟁을 비롯한 분열, 분쟁에 의해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극심한 혼돈과 절망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쟁, 분열, 분쟁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숙종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⁵¹ 최석정, 『明谷集』 권10, 「士林祭明齋尹先生文」(『韓國文集叢刊』 154,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95, p. 43).

⁵² 『이조실록』 286, pp. 544-548.

⁵³ 8월 17일 안중필이 이 일로 상소를 올렸고(『이조실록』 286, pp. 549-551), 10월 1일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을 했으며(『이조실록』 286, pp. 587-588), 같은 달 12일에는 충청도 유생들이 가세하였다(『이조실록』 286, pp. 592-593), 11월 13일에는 권상하가 사직소를 올렸으며(『이조실록』 286, pp. 600-601), 몇일 후인 16일에는 趙尙僎이 상소를 올렸다(『이조실록』 286, pp. 601-604).

⁵⁴ 『이조실록』 287, pp. 6-7.

VI. 결론

〈사헌파진백만병도〉는 부견과 그의 병사들이 비수 전투에서 패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역사고사도이다. 〈사헌파진백만병도〉는 화공 면에서 전통적인 요소 외에도 『황명영렬전』, 『삼국지통속연의』 등 명대 소설 판화 등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숙종대 이후에 제작된 《역사고사인물화책》, 《중국소설회모본》, 〈평양성탈환도〉 등의 그림들과도 일정 부분 관련성을 가졌다. 숙종대에 제작된 역사고사도가 드물게 전하는 상황에서 〈사헌파진백만병도〉는 숙종대 궁중회화의 회화적 특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숙종대 궁중회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작품이다.

숙종은 여러 장르의 그림 중에서도 역사고사도를 많이 감상하였으며 상당수 역사고사도 제작에는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을 함축한 역사고사를 화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숙종이 감상한 이들 역사고사도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전하지 않아 그 전모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숙종의 어제 분석 및 다른 그림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중 일부 그림의 대략적 면모는 추정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나 〈당헌중관무일도〉처럼 『제감도설』, 『양정도해』 등 명말에 제작된 판화를 본으로 하여 제작된 그림과 〈황룡부주도〉, 〈견우과당하도〉의 경우처럼 그 도상을 중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그림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숙종이 감상한 역사고사도가 중국의 본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도상의 마련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헌파진백만병도〉는 바로 후자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림이다. 이것이 이 그림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이다.

〈사헌파진백만병도〉는 숙종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그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숙종이 감상했던 〈제위왕봉즉묵대부팽아대부도〉와 〈황룡부주도〉는 숙종이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조하기 위해 제작한 역사고사도이다. 〈사헌파진백만병도〉 역시 이 그림들과 같은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사헌파진백만병도〉는 부견의 패배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부견이 실천하지 못했던 내치와 자강의 일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한편, 老·少 갈등으로 점철된 당시 정국의 혼란을 매듭지으려고 했던 숙종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그 제작을 지시한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헌파진백만병도〉는 조선시대 회화가 가졌던 공리적 기능을 구체

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면서 조선시대 국왕이 그림을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그림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__ 부견(苻堅, Fu Jian), 사현(謝玄, Xie Xuan), 비수 전투(淝水 戰鬪, Battle of the Fei River), 역사고사도(歷史故事圖, History paintings), 숙종(肅宗, Sukjong), 궁중회화(宮中繪畫, Court painting)

참고문헌

- 『晋書』上, 경인문화사, 영인본, 1998.
- 『資治通鑑』, 上海古籍出版社, 영인본, 1987.
- 『皇明英烈傳』(『古本小說集成』193,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 1990).
- 『養正圖解』(『中國清代宮廷版畫』37, 安徽美術出版社, 影印本, 2002).
- 『帝鑒圖說』(『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14, 北京書目文獻出版社, 影印本, 1988).
- 『三國志通俗演義』(萬卷樓本)(『古本小說集成』260-263,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 1990).
- 『자치통감』(宮體筆寫本, 규장각 청구기호: 古3350-87).
- 『列聖御製』2,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2002.
- 國史編纂委員會編, 『朝鮮王朝實錄』, 探求堂, 영인본, 1968.
- 민족문화추진회 편, 『韓國文集叢刊』154,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95.
- 李山海(朝鮮)等編,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규장각 청구기호: 奎987).
- 朴在淵編,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93.
- 평양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역, 『이조실록』, 여강출판사, 1993.
- 사마광, 권중달 역, 『자치통감』11, 삼화, 2007.
- 鄭英昊 역, 『여씨춘추』, 자유문고, 1993.
- 洪寅杓 역, 『孟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 姜文皓, 「前秦苻堅의 政治와 帝權」, 『中國學報』37, 한국중국학회, 1997, pp. 135-195.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1.
- 金相輝, 「김덕성의 《中國小說繪模本》과 朝鮮後期 繪畫」, 『미술사학연구』207, 한국미술사학회, 1995, pp. 49-71.
- 金南基, 「『列聖御製』에 실린 조선 국왕의 題畫詩 연구」, 『한국문학논총』34, 한국문학회, 2003, pp. 309-337.
- 민길홍, 「정선의 고사인물화」, 『항상 안희준 교수 청년퇴임 기념 논문집 -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1-』, 사회평론, 2006, pp. 314-334.
-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고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박한계, 『中國十世 胡漢體制 研究』, 一潮閣, 1988.

劉美那, 「中國詩文을 주제로 한 朝鮮後期 書畫合璧帖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安輝齋,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李相植,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이성미 외,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이순미, 「조선시대 『海內奇觀』의 수용과 화단에의 영향」, 『강좌미술사』 31,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8, pp. 205-229.

李泰鎭,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의 변천』, 한국연구원, 1985.

_____, 「조선후기 대명의리론의 변천」, 『아시아문화』 1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pp. 5-14.

이현진, 「조선후기 宗廟 정비와 世室論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임제완 역주,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 삼성문화재단, 2006.

장진아, 『왕의 글이 있는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2008.

鄭萬祚, 「朝鮮後期の 良役變通論」, 『東洋學』 2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0, pp. 333-341.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정옥자,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邊大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1985, pp. 527-550.

정은주, 「조선후기 中國山水版畫의 성행과 《五嶽圖》」, 『古文化』 7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8, pp. 49-79.

조규희, 「1746년의 그림: '시대의 눈'으로 바라본 <장주묘암도>와 규장각 소장 『관동십경도첩』」, 『미술사와 시각문화』 6, 사회평론, 2007, pp. 224-253.

진준현, 「숙종의 서화취미」, 『서울대학교 박물관년보』 7, 서울대학교박물관, 1995, pp. 3-37.

국립중앙박물관 편, 『靑綠山水畫·六一帖』 국립중앙박물관한국서화유물도록 14, 국립중앙박물관, 2006.

호암미술관 편, 『김홍도와 궁중화가』, 호암미술관, 1999.

호암미술관 편, 『용, 신화와 미술』, 호암미술관, 2000.

『From the collection of Ryun Namkoong 2002 IV』, 비매품, 2002.

David Andrew Craff, *Medieval Chinese Warfare*,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2.

Julia K. Murray, *Mirror of Morality*,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The Chronicle of Fu Chien: A Case of Exemplar History, translated and annotated with prolegomena by Michael C. Rogers,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謝玄破秦百萬兵圖〉에는 숙종의 감상을 거뒀음을 증명하는 御印이 찍혀 있다. 인물, 말, 산수 표현에는 꼼꼼하고 숙달된 필치가 간취되며 청록 안료와 金泥 등이 그림 채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그림이 숙종대 도화서 화원에 의해 제작된 궁중회화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제목만을 놓고 볼 때 〈사현파진백만병도〉는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淝水 부근에서 東晉 장수 사현(謝玄, 343-388)이 前秦 왕 부견(苻堅, 357-385)이 이끄는 백만 부대를 격파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러나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은 『晉書』 등의 중국 역사서에 기술된 장면, 즉 부견과 그의 병사들이 비수 전투에서 등진군에 패하여 달아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역사고사도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듯 그림 속 모든 표현 요소들은 위 史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림 수장가 혹은 감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숙종(肅宗, 1674-1720)은 〈사현파진백만병도〉와 같은 역사고사도 제작을 자주 지시하였다. 〈齊威王奉卽墨大夫烹阿大夫圖〉, 〈黃龍負舟圖〉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숙종은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역사고사도를 제작해 활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현파진백만병도〉는 부견의 패배 장면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부견이 실천하지 못했던 內治와 自強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老論과 少論의 갈등으로 점철된 당시 정국의 혼란을 대입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숙종이 그 제작을 지시한 그림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현파진백만병도〉는 조선시대 회화가 가졌던 공리적 기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조선시대 국왕이 통치의 한 수단으로 회화를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사현파진백만병도〉는 양식과 화풍 면에서도 조선 후기 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그림에는 전통적인 요소에 더하여 『皇明英烈傳』 등 명대 소설 판화 및 명대 산수 판화 등으로부터 영향 받은 새로운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화풍 면에서 《歷史故事人物畫冊》 등 18세기 초반에서 18세기 중반 사이에 주로 도화서 화원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과도 연관되는 측면을 보인다. 그러므로 〈사현파진백만병도〉는 숙종대 궁중회화의 회화적 특징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숙종대 궁중회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istory Paintings during Sukjong's Reign and the Political Sub-text of *Xie Xuan Defeats Fu Jian's One Million-strong Force*

Lee Seonghun*

Xie Xuan Defeats Fu Jian's One Million-strong Force, an impressive war scene on an eight-panel folding screen from the early 18th century, bears a royal seal on one corner, indicating that King Sukjong (r. 1674-1720) viewed and appreciated this painting. This brilliantly-colored work, made striking by the contrast of deep green and gold, is executed with masterly brushstrokes, providing fine details of human subjects, hors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quality of execution suggests that this unattributed painting was the work of court painters who lived in Sukjong's time, possibly belonging to the *dobwaseo*, the royal bureau of painting.

As can be gathered from its title, the folding screen painting depicts the scene of a famous battle from the Wei, Jin and South and North Dynasties of China, which took place near the Fei River. In this battle opposing Eastern Jin and Former Qin, Xie Xuan's (343-388) army decimated a large contingent of enemy forces led by King Fu Jian (357-385). In visualizing this battle, the history painting faithfully follows the accounts provided in *Jinsbu* (History of Jin) and other ancient Chinese history books. Fu Jian and his troops are, for instance, shown retreating in panic; the state of chaos mentioned in written accounts as a measure of the magnitude of defeat suffered by Former Qin.

* Curator, Busan Museum

A monarch exceptionally fond of paintings, Sukjong frequently ordered works on historical themes. Sukjong commissioned history paintings not just out of personal predilection, but with political agendas in mind. Works such as *King Wei of Qi Bestows Titles on Official Jimo and Has Official A Boiled to Death* or *The Yellow Dragon Carries the Boat* are cases in point. *Xie Xuan Defeats Fu Jian's One Million-strong Force*, offering a vivid visual representation of Fu Jian's defeat,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internal political stability and a strong defense posture, and is likely to have been meant by Sukjong as a message to his divided court, which was torn by political bickering between the Noron and Soron parties. This folding screen painting, therefore, is an excellent testimony to the utilitarian role of paintings in Korea of Joseon period, as well as the active political exploitation of them by the rulers of this dynasty.

Xie Xuan Defeats Fu Jian's One Million-strong Force occupies also an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late Joseon painting for the stylistic influences and affinities it exhibits. This work, while being in the traditional style of painting of its genre, reveals the influence of woodprints from the Ming Dynasty of China, particularly of *Huangmingyingliechuan*. Meanwhile, this painting shows affinities with works on similar historical themes from the early to mid-18th century, attributed to court painters, and notably with *Book of Portraits of Historical and Legendary Figures*. Finally, the value of this folding screen painting is inestimable also as a window into court painting during Sukjong's reign, a high point in the history of this genre of Joseon painting.